

성 당 소 식

지난 주일 주일학교와 유스그룹 대상으로 Career Day 행사가 있었습니다. 5분의 패널들이 참석하셔서 자신의 직업에 대하여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Woo Jin Chae, Software Engineer in Google
- Laura Skiner, Psychologist
- Charles Skiner, Lawyer
- Princess Curtis, Dermatologist
- James Curtis, Network Administrator

각 직업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순
제 3주일

2022년
3월 20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 - 7:00 PM
수~금 - 9:00 AM

주 일 (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 - 4:00 PM
일요일 (영어) - 9:00 AM
(한국어) - 11:30 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 10am~3pm

<http://www.edisonkcc.org>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남웅 스테파노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다. < 루카 13,1-9 >

<이번 주 전례 안내>

제1독서 탈출기 3,1-8 ㄱ. 13-15

화답송 시편 103(102), 1-2,3-4, 6-7,8과 11 (㉟8ㄱ)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10,1-6,10-12

복음환호송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 루카 13,1-9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다.>

주간 전례 말씀	제1독서/제2독서	복음 말씀
월요일 03/21/22	열왕기 하권 5,1-15ㄷ	루카 4,24ㄴ-30
화요일 03/22/22	다니엘 예언서 3,25.34-43	마태오 18,21-35
수요일 03/23/22	신명기 4,1.5-9	마태오 5,17-19
목요일 03/24/22	예레미야서 7,23-28	루카 11,14-23
금요일 03/25/22	이사야서 7,10-14;8,10ㄷ	루카 1,26-38
토요일 03/26/22	히브리서 10,4-10	루카 18,9-14
일요일 03/27/22	호세아 예언서 6,1-6	루카 15,1-3.11ㄴ-32
	여호수아기 5,9ㄱ. 10-12	
	사도 바오로 코린토 25,17-21	

미사지향

연미사	- 봉헌자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경희(수산나)	- 가족
• 오흥순(카타리나)	- 가족
• 김상기(요셉)	- 가족
• 최경자(마리아)	- 최 헬레나
• 박병희	- 김 스텔라
• 정영태(곰벨또)	- 가족
• 성태영(바오로), 성용순(미카엘라)	- 가족
• 성옥금(마리아)	- 김 스텔라
• 박용희	- 김 스텔라
• 백종습(바오로)	- 가족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희생된 영혼들 - 손 유스티노	

생미사	- 봉헌자
• 오경선(원선시오)	- 이대우(베드로) 가족
• 심 루시아	- 가족
• 임영자(안나)	- 하건철(안토니오)
• 이순재(마리아)	- 하건철(안토니오)
• 하연승(요한) 가족	- 하건철(안토니오)
• 정 마이클	- 한상철(빈첸시오)
• 나제이(퀸틸라)	- 가족

주일 헌금

주일미사 참여 144명	합계 : \$1,404
2차헌금 (유틸리티)	합계 : \$530

교무금 납부 안내

김정숙(1-3)	오용운(3)	염기선(3)
이호용(1-3)	하건철(3-4)	정영철(3-4)
서영원(3-4)	한철희(3-4)	김진(2-3)
곽유리안나(3-4)		합계: \$1,890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영철(프란치스코)	하건철(안토니오)
오용덕(헨리코)	오경선(원선시오)
이석종(스테파노)	

공지사항

- # 2차헌금
 - 4월 3일: 부활절 꽃 장식
 - 4월 10일: 메타천 교구 은퇴사제
- # 사순시기동안 미사 시작 30분 전(11시) 부터 십자가의 길 기도가 있습니다.
- # 사순 시기 손님 신부님 미사 집전 및 특강
 - 4/3 사순 5주일 이튼타운 성당 장재명(파트리치오) 신부님
- # 사순 판공성사 일정
 - 3월 24일 (목) 저녁 6시 30분 참회예절, 7시 판공성사
 - 3/20, 3/27 미사 후 30분 간 판공성사 실시
 - 판공성사표 작성 후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 # 사순시기 구역 모임 및 판공 성사 일정
 - 3월 20일(일) 미사 후 울드브릿지, 노스브런스워
 - 3월 26일(토) 오후 2시 메타천, 6시 사우스브런스워
 - 4월 2일(토) 오후 5시 릿거스
 - 4월 3일(일) 미사 후 썸머셋
 - 4월 10일(일) 미사 후 에디슨

- # 사목회의
 - 일시 및 장소 : 4월 3일 (주일) 미사 후 친교실
 - 단체 사진을 찍을 예정이니 사목 및 기획위원들께서는 전원 참석 바랍니다..

- # 레지오 마리아 아치에스 행사
 - 일시 및 장소: 3월 27일 (주일) 미사 후 성당
 - 레지오 마리아의 가장 중요한 연중행사로서, 협조 단원분들과 레지오에 관심있으신 모든 교우분들을 초대합니다.

- # 예비 신자 수련식
 - 3/20, 3/27, 4/3 3주간 예비신자 수련식이 주일미사 중 거행됩니다.
 - 이번 부활 성야에 세례 성사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예비자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예비 신자 명단 : 문세라, 조재익

- # 2022 Bishop's Annual Appeal
 - 2022년 Bishop's Annual Appeal 목표금액은 \$35,000 입니다. 목표금액 달성시 초과금의 50%는 본당으로 귀속되며 3/14까지 약정금액은 \$ 14,919.00 (목표금액의 42.6%, 60가정 참여)입니다.

- # 최승웅(미카엘) 부제님 진료 및 영성 상담
 - 부제님과 의료 및 영성관련 상담이 필요한신분들께서는 매 주일 미사 후 오후 12시 30분부터 2시까지 친교실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제 1독서 < 탈출기 > 3,1-8ㄱㄷ.13-15

그 무렵 모세는 미디안의 사제인 장인 이트로의 양 떼를 치고 있었다. 그는 양 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 하느님의 산 호렘으로 갔다.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솟아오르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가 불에 타는데도, 그 떨기는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내가 가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아야겠다. 저 떨기가 왜 타 버리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보러 오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떨기 한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분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네 아버지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그러자 모세는 하느님을 뵈기가 두려워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하여, 그 땅에서 저 좋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내려왔다.” 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분 이름이 무엇이었어?’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있는 나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는 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하느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이것이 영원히 불릴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대대로 기릴 나의 칭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 2독서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 10,1-6.10-12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 아래 있었으며 모두 바다를 건넜습니다.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두 똑같은 영적 양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라오는 영적 바위에서 솟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바위가 곧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그들 대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 널브러졌습니다. 이 일들은 우리를 위한 본보기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악을 탐냈던 것처럼 우리는 악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투덜거린 것처럼 여러분은 투덜거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괴자의 손에 죽었습니다. 이 일들은 본보기로 그들에게 일어난 것인데, 세상 종말에 다다른 우리에게 경고가 되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이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루카 복음 > 13,1-9

바로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래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래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래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것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열여덟 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삼 년째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 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 버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